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9차 정기총회 회의록

2019. 2. 16. (토) 작성자 : 김진선(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일시	2019. 2. 16. (토) 14:10-15:20	장소	서울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참석자	정회원 참석 23명, 정회원 위임 133명, 학생회원 참석 1명 * 참석자 명단은 비공개		

## 확 인

직 위	이 름	날 인
의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 1. 개회선언

- 개회선언 (이준봉 운영위원)
  - 1부 사회를 담당할 이준봉입니다. 오늘 서기는 김진선 간사가 담당하겠습니다.
  - 이번 총회는 서울기록원과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 오늘은 총회와 더불어 서울기록원 개관 준비 현황 공유 및 국가기록관리혁신 경과점검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 성원보고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전체 재적정회원 354명 중 1/5인 71명이 넘었습니다. 성원 현황은 총 155명(위임장 133명, 참석 22명)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어, 총회 개최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임장 현황은 온라인 위임 57명, 전화 59명, 이메일 11명, 문자 4명, 카카오톡 2명입니다.

### 2. 개회사 및 인사말

- 개회사 : 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
  - 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 : 오늘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상민 협회장님이 총회에 참

석하지 못함. 공동운영위원장인 제가 개회사를 대신 하러 나왔으나, 제가 개회사를 하는 것보다 이번 총회를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기록원의 조영삼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 조영삼 : 서울기록원이 작년에 준공을 완료하고 올해 초에 서울기록원 건물에 들어옴. 서울기록원에서 하는 첫 공식행사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정기총회임. 서울의 공공아카이브는 서울기록원이 처음인데 서울기록원이 기록인들의 이해 및 요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가 만든 공간이지만 어떻게든 기록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더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기록원은 3월 28일에 임시 개관하고 5월 중순 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개관전시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행사가 뜻깊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준봉 운영위원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이 진행해주시겠습니까.

### 3. 2018년 활동보고

- 현황보고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자료집 1~5P 참고)
  - 전년대비 회원은 총 6명 증가하였으며 현재 총 759명이 회원임
  - 세부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부탁 드립니다
- 2018년 활동보고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자료집 6~14P 참고)
  -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전체 운영위원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회원관리 및 배가는 학생회원 정회원 전환 및 학생회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함
  - 국내협력은 2017년에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월례발표회를 2018년엔 진행하지 않음
  - 정책연구·논평은 논평의 양이 예년에 비해 반 정도 감소하였음
  - 예비학교와 학습반은 참가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대학원의 워크숍 프로그램 등 각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참석자 감소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아키비스트캠프는 전년 대비 43명 감소하였으나 2일차 행사는 많이 비율이 참석하여 오히려 2일차 행사의 참석자 수는 증가하였음
  - 전국기록인대회는 협회가 공식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3월 초에 결산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 카르마 발간은 2월 내 발간 및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아키비스트의 눈은 전년 대비 12회가 감소하였는데, 기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진행 사업 중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의 경우 지난 8월 협회원에게 공유한 바와 같이 법인화를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협회 등의 설립' 관련 조

항 신설 등 공공기록물법 개정 건의사항을 국가기록원에 발송하는 등과 같이 협회의 법 인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

▪ 2018년 지부 및 분과 활동보고 & 2019년 활동 계획

- 각 지부 및 분과 별로 보내온 활동보고서는 자료집 지면의 한계로 다 담지 못함
- 각 지부 및 분과의 활동보고서는 추후 회의록과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부산지부(두레)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15~16P 참고)
- 대전지부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17P 참고)
- 전북지부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미제출) : 지부장과 연락해본 결과,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2019년엔 협회와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사를 밝힘
- 대학기록관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19~20P 참고)
-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 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21~22P 참고)
- 국회기록관리연구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23~24P 참고) : 번역출판은 2019년에 진행할 예정
- 교육청 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25~26P 참고)
- 서울지방기록연구반 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27P 참고)

**4. 2018년 결산보고**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자료집 28~30p참고)
  - 잔고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이는 2년간 카르마가 발간되지 않아서 생긴 증가액임
  - 2019년엔 카르마 발간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남은 잔고가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됨

**5. 감사보고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대독)**

- 원종관 감사 감사보고서 (자료집 31~32P 참고)
- 홍정화 감사 감사보고서 (자료집 33P 참고)

**6. 질의응답**

- 윤정훈 :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든 생각을 말해보겠다.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된 부분 중 예비학교 및 학습반은 협회에서 진행한 사업 중 저조한 사업이다. 십여년 전 본인이 학생 때 참여했을 때보다 저조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부산지부 두레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보고 부산지부처럼 기존 재학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컨셉을 바꿔 기록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및 홍보방식의 개선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논평은 편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진행된 현황 문

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지방선거', '대전마케팅공사' 등 이슈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협회원들이 의견조회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2018년 결산보고 중 수입부분에 전기이월액을 넣어 수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다음 결산보고 댄 전기이월액을 제외하고 작성하기를 바란다.

- 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 : 논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많이 쓰지 못하였고, 많이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곤 하지만 협의와 토론 끝에 쓰는 것으로, 모든 내용들이 논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작년엔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논평을 많이 냈다. 내년에도 혁신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협회원들도 협회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많이 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지적사항들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 추후에 말하도록 하겠다.
- 김장환 : 국회분과 관련하여 한 마디 하겠다. 번역서 출간과 관련하여 작년 총회 때도 말했었지만, 몇 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도에 꼭 출간이 될 수 있게끔 말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엔 꼭 출간되었으면 한다.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 이 부분은 작년 연말 국회분과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뒤에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9월 안에 출간하여 전국기록인대회 때 판매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7. 운영위원 승인(안) 심의 • 의결

- 이준봉 운영위원 : 운영위원 승인(안) 심의 • 의결은 공동운영위원장 이철환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 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 협회 일을 하게 될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기존 운영위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 먼저 이번에 새롭게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세 분이 있다. 이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운영위원 후보 김장환 : 이번에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절반의 타의와 절반의 자의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력에도 나와있지만 2010~11년부터 협회를 창립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중 같이 했던 분들도 많은데 감회가 새롭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보다 정체가거나 퇴보한 부분도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으나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다. 협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협회는 현재 공공기록관리 분야 중심으로 되어있다. 협회원 중 공공기록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가장 중심이 되는 회원 층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권익보호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 이번 사업평가에도 나왔지만 공공기록관리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이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외국 아키비

스트 협회도 그렇고 전문가 재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기록원의 재교육과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협회를 만들 때 협회를 단순히 기록관리전문요원만을 타겟팅하지 않았다. 외부에 있는 기록전문가를 어떻게 포함시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를테면 영상자료, 미술관, 일반 시민단체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록전문가들과 어떻게 연대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위 논의들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안에서 이런 논의들에 대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운영위원 후보 이정연 : 되돌아보면 2012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협회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역할에 대한 참여는 안 했던 것 같다. 운영위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년 동안 말로만 했던 본인을 반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운영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해외 아키비스트 협회의 재교육의 역할, 여러 총서 발간 등을 통한 교육자료 제공의 역할, 또는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연대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 운영위원 후보 임태원 : 2012년도에 2년 동안 학생회원으로 사무국에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정회원으로 전환하면서 행사를 매년 참석하며 도왔지만 목마름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이번에 협회에 일조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협회의 정관에 보면 2조의 목적에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앞선 후보자보다 부족하지만 협회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하겠다.
- 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 : 연임하는 운영위원은 시간관계상 일어나서 인사만 하겠다. (연임 운영위원 10명 인사) 원래는 투표로 의결을 해야 하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박수로 의결하도록 하겠다. (참여 인원 모두 찬성 박수) 박수를 모두 쳐서 세 분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0명의 운영위원이 연임하여 총 13명이 선출된 운영위원이 되었다. 또한 현재 협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체계로 운영 중이다. 현재 공동운영위원장인 박종연, 남경호, 이철환이 공동운영위원장을 연임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사항은 아니기에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리고 이상민 협회장은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 규정에 따르면 협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를 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협회장은 추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정관 제12조제2항을 따르면 협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장의 추대 여부가 필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및 협회의 결정사항임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제14조에 따르면 협회장 부재 시 운영위원장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장의 직무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회장 미추대를 결정하면서 단순히 협회장을 할 분이 없어서 협회장 추대를 실패했다고 보기 보다는 1대 안병우 전 협회장님부터 훌륭한 협회장님들이 큰 공을 세우셨다. 하지만 연구자나 선생님의 힘을 빌려 활동하기 보단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운영하고 벽에도 부딪혀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총회를 시작으로 2년 동안 협회를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가 협회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질문 또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저희의 결정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없다면 저희의 결정을 참석해주신 회원 및 위임한 회원들이 지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참여 인원 모두 찬성 박수) 참석해 주신 분들의 동의로 운영위원장 및 협회장 추대 관련 안건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 심성보 운영위원 :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세 분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향후 법적 대표자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다.
- 이철환 공동운영위원장 : 협회의 법적 대표는 세 명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두 명이 공무원이므로 법적대표자가 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이 법적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8.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의결

- 이준봉 운영위원 : 2019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박종연 운영위원장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 (자료집 36~40P 참고) 신설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 2019년 사업 중 교육 사업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학교와 여름학습반을 결합한 방식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시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및 간담회는 회원 대상 재교육 진행에 앞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할 예정이다. 대시민 교육 부분은 공공 및 민간영역 기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시민 교육을 신설하였다. 올해 아키비스트 캠프는 서울기록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할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협의 중이다. 번역서 출판 사업은 국회기록분과의 번역서를 9월 안에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미진행 사업 중 하나인 소식지를 새롭게 창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 제안 및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별도의 질문이 없다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별도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박수로 의결하도록 하겠다. (참여 인원 모두 찬성 박수) 박수를 모두 쳐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 박종연 공동운영위원장 :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 승인(안)을 논의할 때 진행했어야 했으나 진행하지 못하여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 기존 감사는 원종관, 홍정화 선생님 두 분이셨는데 임기가 만료되었다. 새로운 감사로 임희연, 김효진 선생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면 박수로 승인하려고 한다. (박수로 임희연, 김효진 감사 선출) 지금까지 제9차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모두 마쳤다. 기타 제안 안건이 있으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추가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제9차 정기총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의결해 주신 사항에 감사드리며, 박수로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다.